

체크체크

| 국어 3-2 |

정답과 해설

공통 개념 기본서

빠른 정답 한눈에 보기	002
1 문학	010
2 읽기	021
3 문법	025
4 듣기·말하기	030
5 쓰기	031

1 | 문학

01 시

핵심 체크 | p.8~10

- 1 함축적 2 화자 3 ○ 4 시각적 5 내재적 6 ○ 7 독자
- 8 사회 9 ○

개념 확인 문제 p.11

- 1 (1) ○, (2) ○, (3) X 2 (1) 시각적 심상, (2) 청각적 심상, (3) 시각적 심상
- 3 ② 4 (1) 독자, (2) 작가, (3) 시대 5 내적, 작가, 독자 6 (1) 작품 자체, (2) 작가, (3) 사회·문화적 상황

(1) 들판이 적막하다

지문 내용 확인 p.12

- 1 X 2 이기심 3 시각적, 청각적 4 시상의 전환

작품 한눈에 보기 p.12

긍정적 부정적 이기심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 01 ④ 02 ④ 03 ㉠-㉡, ㉣-㉤ 04 ⑤
- 05 ③ 06 ④ 07 [A]에서 가을은 풍요로운 분위기의 계절이지만, <보기>의 가을은 쓸쓸한 분위기의 계절이다.

(2) 수라

지문 내용 확인 p.14

- 1 점층적 2 연민 3 가족 공동체 4 일제 감점기

작품 한눈에 보기 p.14

시간적 화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 01 ① 02 ④ 03 ② 04 ④ 05 ㉠ 가족 공동체가 해체됨, ㉣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남.
- 06 거미 가족이 만나는 공간이다. / 차갑고 고통스러운 공간이다.

(3) 제망매가

지문 내용 확인 p.16

- 1 향가 2 자연 현상 3 불교적

작품 한눈에 보기 p.16

향가 죽음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⑤
- 06 미타찰에서 만날 나 07 ㉠는 죽은 누이를 가리키며, ㉣는 화자를 가리킨다.

(4) 훈민가

지문 내용 확인 p.18

- 1 유교적 2 의문형, 청유형 3 농민(백성)

작품 한눈에 보기 p.18

믿음 백성(농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④
- 06 가거라, 매어 주어라, 보아라

(5)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지문 내용 확인 p.20

- 1 가난 2 축약적 3 1970년대

작품 한눈에 보기 p.20

1970 가난 설의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④
- 06 ① 07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 08 도시 노동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6) 귀뚜라미

지문 내용 확인 p.22

- 1 X 2 ○ 3 여름

작품 한눈에 보기 p.22

소외 대조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에서 알 수 있듯 '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7) 진달래꽃

지문 내용 확인

p.24

- 1 ○ 2 진달래꽃 3 3음보

작품 한눈에 보기

p.24

사랑 역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1연, 4연
 06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07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02 소설

핵심 체크 | p.26~28 |

- 1 갈등 2 내적 3 평면적 4 시점 5 ○ 6 ○ 7 ○
 8 소재 9 X

개념 확인 문제

p.29

- 1 (가) 인물과 인물의 갈등, (나) 인물과 인물의 갈등 2 (가) ㉠, (나) ㉠
 3 삼류차, 노새 4 (1) ○, (2) X, (3) X, (4) ○

(1) 허생전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0

글 변 부자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1~40

- 1 ③ 2 ② 3 ② 4 ⑤ 5 ④ 6 허생이 선비의 격식은 갖추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7 ② 8 ③ 9 ⑤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던 허생이 약속대로 큰 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글을 아 는 사람들 20 ③ 21 ④ 22 ④ 23 ② 24 ④ 25 ① 26 ①
 27 ② 28 ① 29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는 일(청나라에 복수를 하는 일) 이다. 30 ④ 31 ⑤ 32 ④ 33 ② 34 삼고초려 35 ③ 36 ①
 37 이, 달아났다 / 무능력한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31~40

핵심 포인트

- 01 목적골 05 경제, 병자호란
 06 이완, 이완

작품 한눈에 보기

p.41

조선 후기 이완 말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42~43

- 01 ④ 02 ④ 03 ⑤ 04 예법과 명분만을 앞세우는 무능한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05 ④ 06 ④
 07 ⑤ 08 글 읽기만 좋아하던 비현실적인 허생이 장사를 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2) 기억 속의 들꽃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4

피란민 인민군 금반지 여자아이 만경강 폭음 금반지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5~53

- 1 ③ 2 ⑤ 3 ③ 4 ① 5 ⑤ 6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 (이었다.) 7 인민군, 피란(길) 8 ① 9 ③ 10 ③ 11 ④ 12 ①
 13 ③ 14 ④ 15 ① 16 ② 17 ⑤ 18 ④, ⑤ 19 개패 20 ④
 21 명선이의 죽음 22 ⑤ 23 ⑤ 24 명선이 25 ④ 26 ⑤ 27 ㉠, ㉡

핵심 포인트

p.45~53

핵심 포인트

- 01 짐짝, 쓰레기 02 폭격, 두려움
 03 어머니 04 금반지, 죽음, 이기심
 05 회상, 쥐바라송곳, 이기심

소주제

- 발단 1 소녀 발단 2 인민군
 전개 2 금반지 위기 소유권
 절정 죽음 결말 금반지

작품 한눈에 보기

p.54

사투리	어린이	전쟁	금반지	형견
관찰자	전쟁	금반지	명선이	죽음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5

- 01 ② 02 ⑤ 03 ⑤ 04 '호주기'는 6·25 전쟁 때의 전투기이므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이다.

(3) 수난시대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6

아들 고등어 다리 외나무다리 팔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6

- 1 ② 2 ④ 3 ③ 4 ④ 5 ③ 6 ④ 7 ③ 8 ⑤ 9 ⑤ 10 ⑤
 11 ⑤ 12 ② 13 ③ 14 ② 15 ④ 16 이끼 낀 나무토막 17 ③
 18 ② 19 꽤액 기차 소리였다. 20 ① 21 ③ 22 ⑤ 23 ④
 24 ② 25 만도는 옷지를 앓았다.,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
 다., 똑똑한 얼굴, 무거운 신음 소리,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26 ④ 27 ③
 28 ① 29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뎡기메 할 일은 내
 가 하고, 그러면 안 대겠나, 그제?” 30 ④ 31 극복 32 ③ 33 ③

핵심 포인트 p.59~66

핵심 포인트

- 01 불안, 애정 02 비극성, 회상
 03 징용 04 해소
 05 외나무다리

작품 한눈에 보기 p.67

징용 수난 고등어 외나무다리 극복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8~69

- 01 ④ 02 ⑤ 03 ⑤ 04 6·25 전쟁
 05 ④ 06 ⑤ 07 ② 08 우리 민족이 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토끼전

잠깐! 소설 미리보기 p.70

피 권위적 서민(백성) 소신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1~77

- 1 ② 2 북해 용궁 3 용왕 4 토끼의 간 5 ⑤ 6 절망감 7 ②
 8 ⑤ 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① 14 대개 수궁은 육지의
 사정에 밝지 못한 까닭에 15 토 선생 16 ④ 17 ⑤ 18 ④ 19 ④
 20 ② 21 ② 22 ③ 23 ① 24 ③

핵심 포인트 p.71~77

핵심 포인트

- 01 비현실성 02 이기적
 03 어리석다, 충성심, 불안함 04 지혜, 욕심

소주제

- 발단 용궁 전개 용왕
 절정 토끼 결말 탈출, 자결, 죽음

작품 한눈에 보기 p.78

의인화 절망감 충성심 용왕 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9~80

- 01 ⑤ 02 ④ 03 ① 04 힘없는 피지배층(백성), 신
 분의 차이가 있었으며, 지배 계층의 횡포가 심했다. 05 ⑤
 06 ③ 07 ②

03 희곡, 시나리오

| 핵심 체크 | p.81~82 |

- 1 공간적, 등장인물 2 지시문 3 ○ 4 대사, 사건 5 ○ 6 X

개념 확인 문제 p.83

- 1 갈등, 대사, 장면, 무대 2 (1) ㉠, (2) ㉡, (3) ㉢ 3 ① 4 ④ 5 ⑤
 6 ④ 7 서양식, 갓, 서양

(1) 와이엠시에이(YMCA) 야구단

잠깐! 희곡 미리보기 p.84

야구 신분 남녀 일본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5~90

- 1 ② 2 ① 3 ④ 4 ③ 5 ③ 6 ① 7 ④ 8 ③ 9 ① 10 ④
 11 ⑤ 12 ① 13 ① 14 ④ 15 ① 16 ④ 17 ④ 18 ②

작품 한눈에 보기 p.91

실화 사실성 갈등 벽보 연승
 신문물 전통문화 정림 여성 세대
 영어 머슴 여성 병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2~93

-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씹쓸한 07 전통적인 문물과 신문물이 함께 뒤섞여 있는 과도기이다.

04 수필

| 핵심 체크 | p.94~95 |

- 1 수필 2 ○ 3 ○ 4 인생관 5 기행문 6 설

개념 확인 문제 p.96

- 1 (1) 체험, 가치관, (2) 개성, (3) 지혜 2 (1) ㉠, (2) ㉡, (3) ㉢, (4) ㉣ 3 (1) 일
 상적, (2) 비격식적, (3) 논리적, (4) 교훈적, (5) 서사적 4 (1) ㉡, (2) ㉢, (3) ㉠,
 (4) ㉣ 5 ③ 6 ②

(1) 이옥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7

1 ④ 2 ㉠: 행량채, ㉡: 사람의 몸, ㉢: 나라의 정치 3 ④

작품 **한눈에 보기** p.98

교훈 수필 나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9

01 ④ 02 ④ 03 ② 04 건우
05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2) 열보다 큰 아홉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0~101

1 ⑤ 2 ② 3 ⑤ 4 ⑤ 5 ⑤ 6 ② 7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핵심 포인트 p.100~101

핵심 포인트	
01 아홉	02 가능성
03 아홉	
소주제	
처음 아홉	중간 가능성
끝 아홉	

내용 **한눈에 보기** p.102

열 아홉 구곡간장 아홉 강조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3

01 ③ 02 ② 03 ③ 04 ③

2 | 읽기

0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06

1 근거 2 논증 3 X 4 〇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06

1 ④ 2 귀납 3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7~108

1 ③ 2 ⑤ 3 ④ 4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5 ②
6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 7 일반적, 택배 기사, 연역 8 ⑤

핵심 포인트 p.107~108

핵심 포인트	
01 배달 공화국	02 귀납, 과도한 노동
03 반성, 연역	

내용 **한눈에 보기** p.109

빠른 불편 개별적 교통사고 수입
귀납 일반적 개별적 연역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0~111

01 ⑤ 02 ④ 03 ⑤ 04 택배 기사들은 저렴한 배송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05 ⑤
06 ⑤ 07 ③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인공 빛의 두 얼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2~114

1 ① 2 멜라토닌의 합성이 중단된다. 3 ⑤ 4 ① 5 ①, ②
6 자연의 시계대로 살아가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불필요한 불을 끄자.

핵심 포인트 p.112~114

핵심 포인트	
02 생체 리듬	03 악영향, 귀납
04 연역	

내용 **한눈에 보기** p.115

근거 사람 동물 식물 귀납
인간 연역 자연 불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6~117

01 ⑤ 02 ③ 03 ① 04 지나친 인공 빛은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 05 ④ 06 ④ 07 ①
08 ② 09 [A]에는 일반적 법칙으로부터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쓰였지만, <보기>에는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쓰였다.

02 비교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8

1 관점 2 형식 3 비교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8

1 ③ 2 ①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9~122

1 ③ 2 뇌, 관절, 근육 3 ④ 4 ① 5 ⑤ 6 ④ 7 ⑤ 8 <보기>는 '올바른 젓가락질'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취하지만 이 글은 비판적 관점을 취한다.

핵심 포인트

p.119~120

핵심 포인트

01 이상한 02 성장 발육, 근육, 집중력, 긍정적
03 실력

핵심 포인트

p.121~122

핵심 포인트

01 정석, 식사 예절 02 표준, 손가락, 일본
03 젓가락질, 부정적

내용 한눈에 보기

p.123

논설문	긍정적	비판적	긍정적	논설문
구체적	직접적	편지글	친근한	솔직하고
관점	형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4~125

01 ③ 02 ④ 03 ③ 04 젓가락질은 뇌를 자극하는 과정이며, 손가락 관절과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손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나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05 ④ 06 ④ 07 ②
08 • 공통점: '젓가락질 교육'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 차이점: 이 글에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는 관점이 나타나는 데 반해, <보기>에는 올바른 젓가락질을 위한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03 다양한 해석 비교하며 감상하기

핵심 체크 | p.126

1 독자 2 작품 3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6

1 ④ 2 ④

나비의 허리를 보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7~129

1 ③ 2 ⑤ 3 모더니스트라는 작가의 작품 경향에 주목하여 해석하고 있다. 4 청무밭, 무꽃 5 ① 6 ② 7 바닷물의 소금기에 나비의 날개가 절었다, 나비가 날개를 기우뚱하게 절었다. 8 ③ 9 때가 이른 것들이며, 하얗고 길고 가늘게 휘어 있다. 10 ④ 11 ③ 12 ①

핵심 포인트

p.128~129

핵심 포인트

02 시각적, 무꽃, 물결(바다) 03 절다, 공주
04 냉혹, 근대, 지식인

내용 한눈에 보기

p.130

바다	근대	좌절감	작가	작품 자체
현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1~132

01 ③ 02 ⑤ 03 ⑤ 04 나비는 푸른 바다가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날개만 절어서 돌아왔고, 이를 통해 바다가 청무밭이 아니고 푸른 것이 모두 청무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05 ② 06 ② 07 '바다'는 근대 혹은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 '나비'는 시대 현실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던 시인 자신 또는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을 의미한다.

3 | 문법

01 음운의 체계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4~136

1 ○ 2 ○ 3 모음 4 최고점 5 X 6 나 7 ○ 8 위치 9 목청 10 나 11 ○ 12 X 13 파찰음 14 세기 15 ㅁ 16 된소리, 거센소리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7~138

- ① 음운의 개념 이해하기
(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 바, 사 / 타, 나 / 가, 오
② 모음 체계 이해하기
• 받지 않고 / 받고

-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 ㅑ, ㅓ, ㅕ, ㅛ, ㅟ, ㅡ, ㅣ, ㅥ, ㅧ, ㅩ, ㅫ, ㅭ, ㅯ, ㅱ, ㅳ, ㅵ, ㅷ, ㅹ, ㅻ, ㅽ, ㅿ, ㅿ
- ㅌ, ㄹ, ㄴ, ㄷ - 혀의 높이가 높음.
- ㅕ, ㅛ, ㅟ, ㅡ - 혀의 높이가 중간임.
- ㅓ, ㅗ - 혀의 높이가 높음.
- ㄱ, ㅋ, ㆁ / ㆁ, ㅈ, ㅊ

3 자음 체계 이해하기

- ㅁ, ㅂ, ㅃ, ㅍ - 두 입술
- ㄴ, ㄷ, ㄸ, ㅌ, ㄹ, ㅍ, ㅍ - 혀끝과 윗잇몸
- ㅈ, ㅉ, ㅊ - 혀바닥과 센입천장
- ㄱ, ㅋ, ㆁ -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 ㅎ - 목청
- ㄱ / ㅋ / ㆁ, ㅋ / ㅌ / ㅈ / ㅉ / ㄴ, ㄴ, ㄴ

- (1)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 ㅑ, ㅓ, ㅕ, ㅛ, ㅟ, ㅡ, ㅣ, ㅥ, ㅧ, ㅩ, ㅫ, ㅭ, ㅯ, ㅱ, ㅳ, ㅵ, ㅷ, ㅹ, ㅻ, ㅽ, ㅿ, ㅿ
- (2) ㅌ, ㄹ, ㄴ, ㄷ, ㄸ, ㅌ, ㄹ, ㅍ, ㅍ, ㅍ / ㄴ, ㄷ, ㄸ, ㅌ, ㄹ, ㅍ, ㅍ, ㅍ

4 소리의 길이

- (1) ㄱ. 밤[粟] / ㄴ. 말[語] / ㄷ. 병[病]
- (2) ㄱ. [추운바메따뜨탄바: 물까머겁따]
- ㄴ. [말타면경마자피고십따는마: 리일따]
- ㄷ. [이병에는그병: 을고칠쑈인는야기드러일따]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7~138

1 ④ 2 ② 3 ③ 4 단어를 발음할 때의 소리의 길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39

- 01 음운, 자음, 모음, 길이 02 자음, 모음
- 03 단모음, 이중 모음 04 전설 모음, 후설 모음
- 05 원순 모음, 평순 모음 06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 07 ① 최고점, ② 입술, ③ 높낮이, ④ ㅌ, ⑤ ㅊ, ⑥ ㅈ, ⑦
- 08 ①-㉔, ②-㉔, ③-㉔, ④-㉔, ⑤-㉔
- 09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 10 ①-㉔, ②-㉔, ③-㉔ 11 ① ㅂ, ② ㄷ, ③ ㅌ, ④ ㄱ, ⑤ ㅍ, ⑥ ㅍ, ⑦ ㅎ, ⑧ ㅊ, ⑨ 비음, ⑩ ㅁ, ⑪ 유음, ⑫ ㄹ
- 12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13 음운
- 14 [벌:], [벌], 뜻, 음운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0~142

- 01 ③ 02 ⑤ 03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04 ①
- 05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 06 ③ 07 ③
- 08 ㄴ, ㄷ, ㄸ 09 ㉔ 파열음, ㉔ 마찰 10 소리 나는 위치 11 ④
- 12 ① 13 빵 14 ⑤ 15 ④ 16 'ㄴ, ㄷ, ㅁ, ㅇ'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비음인데, 코를 막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17 ③
- 18 [눈:물], [눈물] 19 ③ 20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고 소리 나는 데 비해, 자음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 받으며 소리 난다. 21 ② 22 ㉔의 'ㅅ'는 [ㅅ]로, ㉔의 [탈]은 각각 [탈], [탈], [탈]로 발음해야 한다. 이로 보아 우리말 자음은 외국어와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6~147

02 문장의 짜임과 양상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3~145

- 1 ○ 2 X 3 보어, 부사어 4 바다를,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5 ○
- 6 X 7 문장 성분 8 흘문장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9 서술절 10 X 11 는 12 소리 없이, 부사절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46~147

1 문장 성분 이해하기

주성분 / 주어, 서술어, 보어
부속성분 /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

문장의 주성분을 알아보자.

- (1) 주어: 하늘이, 지후가 서술어: 파랗다, 달린다
- (2) ① 밥을 / '먹는다'는 서술어 동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중학생이 / 서술어 '되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 (3) (2)에서 완성한 문장은 모두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문장이 온전하지 않다.

문장의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을 알아보자.

- (1) '까만'은 체언인 '모자'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정말'은 용언인 '멋있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 '까만'과 '정말'을 생략해도 문장은 온전하다.
- (3) '와' 대신 '세상에' 등의 말을 넣을 수 있으며, 이 말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쓰인다.

2 문장의 짜임과 양상 탐구하기

- (1) 비가 와서 땅이 질다. / 비가 오면 땅이 질다.
- (2)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몹시 내린다.
- (3) 동생은 운동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다.

문장의 확대 방식을 탐구해 보자.

- (1) ㉔ 둘 이상의 흘문장을 나란히 이음.
 ㉔ 한 흘문장이 다른 흘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음.
- (2) ① 너는 배를 좋아하지만, 나는 배를 싫어한다.
 ② 나는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른쪽 문장을 절로 바꾸어 안은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절을 가진 안은문장인지 써 봅시다.

- (1) 은우가 노래를 부르기 / 명사절
(2) 은우가 노래를 부르는 / 관형절
(3) 은우가 노래를 부른다고 "은우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 인용절

3 표현 의도에 따라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2) 앞 문장의 내용이 '그 소설'을 꾸며 주게 하여 어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지를 표현하고 싶었어.

다음 그림을 보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문장을 고쳐 써 보자.

슬기가 보고 싶어 하는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6~147

- 1 ⑤ 2 ① 3 ① 4 동생이 소설을 읽는 숙제를 한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8

- 01 문장 성분 02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03 부속 성분
 04 보어 05 주어, 서술어 06 관형어, 부사어
 07 독립어, 부름 08 목적어 09 ①-㉔, ②-㉕, ③-㉖, ④-㉗
 10 관형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1, 홀 11 ①-㉘, ②-㉙
 12 ① 서술절, ② 관형절, ③ 부사절, ④ 인용절, ⑤ 명사절
 13 ① 가볍지만 ② 가벼워서 ③ 가벼운 14 ①-㉚, ②-㉛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9~151

- 01 ㉜ 02 ㉜ 03 ㉜ 04 ㉜ 부사어, ㉜ 보어
 05 ㉜ 06 ㉜ 07 ㉜ 08 ㉜ 09 꾸며 주는
 말이 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10 ㉜
 11 ㉜ 12 ㉜ 13 ㉜ 14 ㉜ 15 ㉜
 16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17 ㉜ 18 ㉜
 19 ㉜ 20 ㉜ 21 '춤'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다. / 많은 사람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
 다. 22 ㉜ 23 ㉜

03 통일 시대의 국어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2~154

- 1 X 2 O 3 문화어 4 한글 맞춤법 통일안 5 남한은 사이시옷을 표
 기하지만, 북한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6 O 7 X 8 맺들 9
 말다듬기 10 사상 11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었다 12 O 13 X
 14 일없습니다 15 겨레말큰사전 16 맞춤법 17 남한에서는 간접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한다.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55~156

- ①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다음 활동을 하며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정리해 보세요.
 (1) 분단 이후 교류가 없어서 / 서로 다른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 남한은
 표준어를 쓰고 북한은 문화어를 써서 등
 (2) 의존 명사를 붙여 씀. / 두음 법칙을 인정함. /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3)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 망돌, 게사니, 가마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의미로 쓰는 어휘 - 동무, 세포, 바쁘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 - 끝자, 손기척, 로동영웅,
 밥공장

북한의 언어 자료를 살펴보고 남북 언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 (1) 패스트푸드점 / 피시버거 / 에그버거 / 아채샐러드
 튀김요리 / 아이스라떼 / 오렌지주스
 (2) 겨울량식 / 고간, 메돼지, 표말

②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으로 인한 어려움

다음 만화에서 선생님의 승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까닭을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징'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 학생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 기
 분이 나뻐 있을 것이다.

남북 언어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자.

- (1) 달라진 어휘를 뜻풀이에 반영하여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 남북 언어의 차이가 지속되면 상대방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③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다음에 고려하여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말해 보자.

남한에서는 지나친 외국어의 사용을 줄여야 하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
 이 반영된 어휘들을 순화하거나 다른 어휘로 교체해야 한다.

다음에 고려하여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말해 보자.

- 어문 규범을 통일할 수 있는 공동 연구 기관을 만들어 남북의 규정을 적절
 히 조화하여 통일안을 만든다.
- 통일 교육의 교과 과정 내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포함하여 어릴 적부터 교육한다.
-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해
 야 한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55~156

- 1 ㉜ 2 ㉜ 3 ㉜ 4 사회주의 이념이 강하게 반영된 어휘들을 순화해야
 한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57

- 01 정치 02 단어 03 동질성 04 통일안
 05 표준어, 문화어
 06 나룻배, 나루배, 이용, 리용, 의존 명사, 의존 명사
 07 ①-㉘, ②-㉙, ③-㉚, ④-㉛ 08 이념
 09 ①-㉜, ②-㉝, ③-㉞, ④-㉟ 10 ①-㉟, ②-㊱, ③-㊲
 11 괜찮습니다. 12 맞춤법, 단일, 언론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8~159

- 01 ㉜ 02 ㉜ 03 ㉜ 04 ㉜ 05 ㉜
 06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07 ㉜ 08 ㉜ 09 ㉜ 10 ㉜ 11 승희는 비
 하의 의미 없이 순수하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이지만 선생님은 교
 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하의 의미를 담아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4 듣기·말하기

01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

핵심 체크 | p.162 |

- 1 관심, 요구 2 말하기 불안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2

1 ② 2 ①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3~168

1 ④ 2 ⑤ 3 ④ 4 ④ 5 ① 6 문제점을 밝힌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흐름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7 말하기 불안 8 ① 9 ⑤ 10 ④ 11 ⑤ 12 통계, 영상 자료 등에 익숙하다. 13 ④ 14 발표 내용 요약 카드를 확인했다. 15 ⑤ 16 ② 17 ② 18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 포인트

p.163~168

핵심 포인트

- 01 요구, 관심, 공감 02 청중, 관심사, 관심사, 특성, 기대
- 03 부담감, 불안함, 긍정적인 04 비용, 요약, 질문
- 05 비료, 후원, 도표, 영상, 사진, 관심, 이해

내용 한눈에 보기

p.169

공감	특성	관심사	기대	요구
부담감	편안한	연습	쓰레기	처리 비용
환경	비료	후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0~171

01 ② 02 ⑤ 03 ④ 04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긴장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발표를 망치면 안 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05 ⑤ 06 ③
07 ① 08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75~180

1 ② 2 ① 3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4 ③ 5 ⑤ 6 다른 사람의 자료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① 8 ③ 9 ④ 10 ① 11 결과를 과장해서, 의도에 맞는 결과 12 ② 13 ① 14 ① 15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 16 ② 17 ④ 18 ⑤ 19 ① 20 ⑤ 21 잘못된 내용을 담은 글로 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잘못된 내용을 담은 글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175~180

핵심 포인트

- 01 당류, 설문, 면담 02 설문, 현장, 자료, 면담, 출처
- 03 매체, 과장, 의도 04 절차, 매체
- 05 출처, 짜집기, 사실, 신뢰성, 저작권법

내용 한눈에 보기

p.181

조사 방법	설문	현장	자료	면담
절차	결과	매체	사실	인용
신뢰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82~183

01 ⑤ 02 ② 03 ③ 04 보고서는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조사의 절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05 ① 06 ③ 07 ③ 08 조사 결과를 나타낸 표나 도표(그래프)를 제시한다.

5 | 쓰기

01 보고하는 글 쓰기

핵심 체크 | p.174

1 절차, 결과 2 쓰기 윤리 3 신뢰성이 떨어진다.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4

1 ③ 2 ③

1 | 문학

01 시

핵심 체크 | p.8~10

- 1 함축적 2 화자 3 ○ 4 시각적 5 내재적 6 ○ 7 독자
8 사회 9 ○

개념 확인 문제 p.11

- 1 (1) ○, (2) ○, (3) X 2 (1) 시각적 심상, (2) 청각적 심상, (3) 시각적 심상
3 ② 4 (1) 독자, (2) 작가, (3) 시대 5 내적, 작가, 독자 6 (1) 작품 자체,
(2) 작가, (3) 사회·문화적 상황

(1) 들판이 적막하다

지문 내용 확인 p.12

- 1 X 2 이기심 3 시각적, 청각적 4 시상의 전환

작품 한눈에 보기 p.12

긍정적 부정적 이기심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 01 ④ 02 ④ 03 ㉠-㉡, ㉣-㉥ 04 ⑤
05 ③ 06 ④ 07 [A]에서 가을은 풍요로운 분위기의 계절이지만, <보기>의 가을은 쓸쓸한 분위기의 계절이다.

- 01 이 시의 화자는 가을 들판에 메뚜기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 02 이 시는 '아,', '메뚜기가 없다!'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은 은유법, ②는 의인법, ③은 역설법, ⑤는 직유법을 사용하였다.
- 03 이 시의 1행에서 3행까지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풍요로운 가을 들판을 표현하였으며, 5행과 6행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적막한 가을 들판을 표현하였다. ㉠은 후각적 심상, ㉡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된 표현이다.
- 04 이 시에서 화자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생태계 파괴에 대해 위기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05 화자는 메뚜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깨닫고 있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는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를 의미하는데, 이 시에서 화자가 메뚜기로 인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6 이 시에서 '메뚜기'는 인간이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메뚜기'는 '생명의 황금 고리'를 담

당하는 생태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뚜기의 부재가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 07 [A]의 가을은 눈부신 햇살과 맑은 공기, 풍요롭게 익고 있는 벼들로 표현되는 수확의 계절이지만, <보기>의 가을은 낙엽이 땅명 정부의 지폐처럼 흩날리는 쓸쓸하고 공허한 분위기의 계절이다.

(2) 수라

지문 내용 확인 p.14

- 1 점층적 2 연인 3 가족 공동체 4 일제 강점기

작품 한눈에 보기 p.14

시간적 화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 01 ① 02 ④ 03 ② 04 ④ 05 ㉠ 가족 공동체가 해체됨, ㉡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남, 06 거미 가족이 만나는 공간이다. / 차갑고 고통스러운 공간이다.

- 01 이 시에는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화자는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02 각 연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1연은 '거미 새끼', 2연은 '큰 거미', 3연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로 각각 다르다.
- 03 1연에서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 새끼를 쓸어 버리는데, 2연에서 큰 거미를 보고는 쓸어 버린 거미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서러워한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무척 작은 거미 새끼를 보면서 가슴 에이는 듯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
- 04 1연에서 '거미 새끼'를 버린 행위는 거미 가족의 이별을 초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2연과 3연에서 '큰 거미'와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버린 행위는 거미 가족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05 화자는 거미 가족의 이별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2연과 3연에서 거미들을 밖으로 버리는 행동은 이러한 소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한 행동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해체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06 '찬 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뉘뉘'는 추운 공간으로, 거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고통스러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헤어진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다.

(3) 제망매가

지문 내용 확인

p.16

1 향가 2 자연 현상 3 불교적

작품 한눈에 보기

p.16

향가 죽음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⑤

06 미타찰에서 만날 나 07 ㉞는 죽은 누이를 가리키며, ㉟는 화자를 가리킨다.

- 01 이 시의 작가는 승려이자 화랑인 월명사이다. 향가는 다양한 계층이 창작을 했지만, '향찰'이라는 표기 방식은 한자를 아주 잘 알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주로 지식인 계층에서 창작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02 이 시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제재로 하고 있다. 이 시의 작가는 이러한 슬픈 상황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독자들에게 심미적 감동을 주고 있다.
- 03 9구의 '아아'를 기준으로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삶의 무상함을 느꼈지만, 9구 이후에서는 이러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04 '이에 저에'는 나뭇잎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의 죽음은 예상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낸다. 이 시를 통해 누이의 삶이 어땠는지 추측할 수는 없다.
- 05 '미타찰'은 서방의 극락세계를 의미하는데, 화자는 죽은 누이와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며 도를 닦고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미타찰'은 재회의 공간이다.
- 06 '미타찰'은 누이와 재회할 공간인데, 화자는 '만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재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 07 3구의 '나는 간다'는 누이의 말을 상상하며 인용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나'는 죽은 누이로 볼 수 있다. 9구의 '나'는 도를 닦으며 누이와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이다.

(4) 훈민가

지문 내용 확인

p.18

1 유교적 2 의문형, 청유형 3 농민(백성)

작품 한눈에 보기

p.18

믿음 백성(농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가거라, 매어 주어라, 보아라

- 01 이 시조는 유교 윤리를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한편 10수는 의문형 문장, 13수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심상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 02 중장 '나의 원 일을 다 이르러 하노매라.'에서 친구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 충고하는 것을 벗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 03 <제10수>는 좋은 벗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④ '봉우유신'은 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하는 한자성어이다. ①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 ② 부부유별(夫婦有別):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음. ③ 남녀유별(男女有別):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함. ⑤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제간에 우애가 깊게 지냄.
- 04 초장과 중장에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자고 권유하고 있고, 중장에서는 자신의 일을 마치면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돕자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 05 <보기>를 통해 '훈민가'는 백성들을 윤리적으로 교화하는 교훈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노인 공경, ②는 남녀유별, ③은 효, ⑤는 형제간의 우애를 노래하고 있지만 ④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06 화자가 농민에서 양반으로 바뀐다면 청유형을 명령형으로 바꾸는 것이 알맞다.

(5) 가난한 사랑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지문 내용 확인

p.20

1 가난 2 촉각적 3 1970년대

작품 한눈에 보기

p.20

1970 가난 설의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01 ④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① 07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08 도시 노동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이다.

- 01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로, 가난으로 인해 인간적 감정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 02 이 시에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난하다고 해서 ~ 모르겠는가' 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3 부제에서 말하는 '이웃의 한 젊은이'는 1970년대 도시 노동자로 가난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04 ㉠, ㉡을 통해 통금이 존재하고 메밀묵 파는 사람이 있던 1970년대의 사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05 이 시의 작가는 1970년대 가난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힘겹게 살아온 도시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를 통해 취업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다.
- 06 설의법이 사용된 '가난하다고 해서 ~겠는가'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절실하게 표현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07 시적 화자가 가난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로 제시된 내용을 찾는다.
- 08 작가는 시적 화자를 통해 가난으로 인해 인간적인 감정마저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를 1970년대 상황과 연관 지어 본다면 작가는 도시 노동자들의 삶의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귀뚜라미

지문 내용 확인 p.22

1 X 2 O 3 여름

작품 한눈에 보기 p.22

소외 대조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에서 알 수 있듯 '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 01 이 시의 시적 화자인 귀뚜라미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며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강인한 생명력과 연결 짓기는 어렵다.
- 02 '귀뚜라미'로 설정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

나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03 이 시의 귀뚜라미가 화자가 되어 사람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의인법이 쓰였다. ①은 은유법, ②와 ⑤는 직유법, ④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04 이 시에서의 '매미'와 '귀뚜라미'가 처한 환경과 생태는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 05 이 시의 시인은 시인 자신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귀뚜라미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귀뚜라미로 설정하였다.
- 06 시인은 울음과 노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 07 3연의 마지막 행에서 '노래'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에는 자신의 울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이 드러난다.

(7) 진달래꽃

지문 내용 확인 p.24

1 O 2 진달래꽃 3 3음보

작품 한눈에 보기 p.24

사랑 역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1연, 4연
06 사뿐히 지러 밟고 가시옵소서. 07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01 이 시는 화자의 감정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2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드러내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시적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은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 03 ④는 사랑의 속성을 문답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끝 간 곳을 모르겠다는 표현을 통해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시에는 이별의 슬픔이나 정한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 04 ㉠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⑤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 05 1연과 4연의 2·3행은 '만약 ~ 한다면, ~ 하겠다'는 미래 시제의 표현이다.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 06 3인의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 07 ㉠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속에 감춰진 의미가 서로 반대인 반어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정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소설

핵심 체크 | p.26~28

- 1 갈등 2 내적 3 평면적 4 시점 5 ○ 6 ○ 7 ○
8 소재 9 X

개념 확인 문제

p.29

- 1 (가) 인물과 인물의 갈등, (나) 인물과 인물의 갈등 2 (가) ㉠, (나) ㉠
3 삼류차, 노새 4 (1) ○, (2) X, (3) X, (4) ○

(1) 허생전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0

글 변부자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1~40

- 1 ③ 2 ② 3 ② 4 ⑤ 5 ④ 6 허생이 선비의 격식은 갖추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7 ② 8 ③ 9 ⑤ 10 ②
11 ① 12 ⑤ 13 ④ 14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던 허생이 약속대로 큰 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글을 아는 사람들 20 ③ 21 ④ 22 ④ 23 ② 24 ④ 25 ① 26 ①
27 ② 28 ① 29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는 일(청나라에 복수를 하는 일)이다. 30 ④ 31 ⑤ 32 ④ 33 ② 34 삼고초려 35 ③ 36 ①
37 이, 달아났다 / 무능력한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 1 목적곡은 허생이 사는 동네인데, 허생은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글 읽기만 좋아하는 선비이다.
- 2 아내는 돈을 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에게 화가 나서 돈을 벌어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 3 '평생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도~'라는 아내의 말과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 그렇소'라는 허생의 말을 통해 학문의 목적에 대한 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 4 '변 부자를 찾아가 예를 갖춘 뒤'라는 말을 통해 허생이 변 부자에 대한 예는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 5 허생은 자세한 설명 없이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며, 변 부자 또한 자기 뜻을 과장하거나 중언부언하는 인물을 신뢰하지 않는다.

- 6 허생이 '띠, 가죽신, 갓, 두루마기' 등으로 양반으로서의 격식은 갖추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 7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를 뜻하는 단어의 올바른 표기는 '으레'이다.
- 8 '매점매석'은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샀다가 팔기를 꺼려 쌓아 두는 판매 전략이다.
- 9 허생이 제주도에 간 것은 말총이 대부분 제주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그 말총으로 만든 것이나 망건은 나라 전체의 양반들이 사용한다.
- 10 허생이 안성으로 간 것은 안성이 전국의 각 지역으로 연결된 길목이어서 모든 물자가 안성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 11 (바)에서 허생은 돈 만 냥으로 나라 경제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경제 구조와 유통 구조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12 섬에 도착한 허생은 '땅이 천 리도 채 못 되니 여기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 13 도둑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좋으나 돈이 없어서 땅과 소를 살 수 없어 도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14 도둑들이 허생을 미친놈이라 한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5 허생은 도둑들 스스로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설득하고 있다.
- 16 허생이 도둑들을 모두 데리고 섬으로 감으로써 나라에서 해결 못한 도둑 떼 문제가 해결되었다.
- 17 허생이 잘되었다고 한 것은 도둑들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도둑들이 허생을 따라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 18 허생이 배를 불사른 것은 외부와의 왕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허생이 외부와의 자유로운 왕래를 시험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9 허생은 섬에서 재앙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글을 아는 자들을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섬을 떠난다.
- 20 (파)에서 허생은 나라 안의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구세제민'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민중을 구함.'의 의미이다.
- 21 허생은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변 부자에게 자신을 장사치로 아느냐며 화를 내고 있다.
- 22 할멈은 변 부자에게 허생이 집을 나간 이후의 상황을 요약해서 알려 주고 있다.
- 23 변 부자는 허생의 가난한 살림과 허생의 아내가 허생의 제사를 지낸다는 사연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 24 허생은 변 부자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옷과 양식만을 받으면서, 그 양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재앙을 떠안긴다며 화를 냈다.
- 25 (너)에서 돈이 천 냥인 장사치는 여러 물건을 나누어 구입하지만, 만 냥의 돈이 있으면 독점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26 허생은 변 부자가 돈을 내준 것은 하늘의 뜻이지 자신이 미리 안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는 '인명재천'이다.
- 27 허생은 때를 만나지 못해 인재들이 산속과 바닷가에 묻혀 사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28 <보기>를 통해 볼 때, 이완은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면 소설에 현실감을 줄 수 있다.
- 29 (터)의 변 부자는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기 위해 지혜로운 선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30 변 부자의 말을 통해 허생은 이완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를 무시하면서 문밖에 세워두고 있다.
- 31 (어)에서 허생은 선비들은 청나라에서 과거를 보게 하고, 장사치들은 강남에까지 들어가 실정을 염탐하게 하자고 말하고 있다.
- 32 허생의 계책에 대해 이완은 사대부의 명분과 예법 또는 체면 등을 이유로 들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33 (서)에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망했음을 알 수 있다.
- 34 '삼고초려'는 유비와 제갈량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 35 병자호란 이후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말타기나 칼 쓰기 등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6 허생이 사라진 것으로 소설의 끝을 맺음으로써 허생에 대한 신비감을 높이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 37 허생의 위협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이 대장의 행동은 '어영대장'이라는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이를 통해 이완 대장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대부들을 희화화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31~40

핵심 포인트	
01 목적골	05 경제, 병자호란
06 이완, 이완	

작품 한눈에 보기 p.41

조선 후기 이완 말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42~43

- 01 ④ 02 ④ 03 ⑤ 04 예법과 명분만을 앞세우는 무능한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05 ④ 06 ④
 - 07 ⑤ 08 글 읽기만 좋아하던 비현실적인 허생이 장사를 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 01 이 소설에서는 허생과 아내의 갈등, 허생과 이완의 갈등 등은 나타나지만 허생의 내적 갈등은 자주 드러나지 않는다. (마)에 나오는 '이 대장'은 어영대장 이완을 가리키는데, 이완은 효종 때 실존했던 인물이다.
 - 02 (다)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농사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허생의 말에 도둑들이 '누가 그걸 몰라서 이려고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 도둑들은 가능하다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함을 알 수 있다.
 - 03 (마)에서 이 대장은 젊은이들에게 변발을 시키고 되놈 옷을 입히라는 허생의 제안에 사대부들이 따르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답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청나라의 문물을 알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4 (마)의 이 대장은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허생의 말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보기>에서 허생은 예법만 중시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다.
 - 05 (라)에서 허생은 십만 냥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변 부자의 말에 자신을 장사치 취급을 한다며 화를 내고 있다. 이들 통해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을 알잡아보는 허생의 신분적 한계가 드러난다.
 - 06 (마)에서 허생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북벌론자들에게 명나라의 자손들에게 딸을 시집보내라고 제안한 후 그럴 수 없다는 답을 유도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북벌론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있다.
 - 07 유교의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도리인 오륜 중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웃어른에 대한 예절을 말하는 도덕 규범이다.
 - 08 아내는 글 읽기만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던 허생에게 화를냄으로써 허생이 글 읽기를 중단하고 장사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 기억 속의 들꽃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4

피란민 인민군 금반지 여자아이 만경강 폭음 금반지

1 ③ 2 ⑤ 3 ③ 4 ① 5 ⑤ 6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 (이었다.) 7 인민군, 피란길 8 ① 9 ③ 10 ③ 11 ④ 12 ① 13 ③ 14 ④ 15 ① 16 ② 17 ⑤ 18 ④, ⑤ 19 개패 20 ④ 21 명선이의 죽음 22 ⑤ 23 ⑤ 24 명선이 25 ④ 26 ⑤ 27 ㉠, ㉡

- 1 ㉡의 원관념은 '서양의 어느 똥똥보 할아버지'이다. 나머지는 '소녀'를 가리킨다.
- 2 ⑤의 '남포'는 포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글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 3 '만경강 다리'는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 4 어린애들은 어른들의 보호 아래에 있으므로 전쟁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심해서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 5 아버지는 폭격으로 만경강 다리가 잘리자 이 마을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피란을 허락하게 되었다.
- 6 철없는 남매는 피란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
- 7 '인민군', '피란', '피란길'이라는 말을 통해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 중임을 알 수 있다.
- 8 누나와 '나'는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고 즐겁게 피란을 가다가 도중에 인민군과 마주치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9 ㉠은 인민군에게 들리면 안 되는 상황이므로 ③과 같은 지문이 가장 잘 어울린다.
- 10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명선이를 받아들이고 집에서 머슴 처럼 부리려고 하였지만, 명선이를 머슴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다.
- 11 아이들은 명선이가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처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스워하였다.
- 12 명선이는 어머니를 공습으로 잃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시신에 깔린 경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깔리면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곤 한다.
- 13 명선이는 자신에게 금반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나'를 경계한 것이다.
- 14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와 그동안 명선이를 먹여 주고 재워 준 값을 따지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15 어머니는 금반지를 길에서 주웠다고 말하는 명선이의 대답에 의혹을 품고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16 (파)에는 금반지의 출처를 추궁하는 아버지와 금반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명선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17 두 번이나 금반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아 명선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 18 명선이는 남자아이로 보이는 것이 전쟁 중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19 ㉠은 명선이에게 금반지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으로, 명선이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개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20 아버지는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명선이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사람들 앞에서 명선이를 감싼 것이다.
- 21 ㉠에서는 명선이를 상징하는 들꽃(쥐바라송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명선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 22 '나'의 부모는 금반지를 얻어 내기 전에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이의 숙부가 다시 명선이를 찾으러 올까 봐 조바심치고 있다.
- 23 명선이가 유독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비행기 폭격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충격 때문이다.
- 24 '쥐바라송꽃'은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 전쟁 중에 강한 생존력을 보여 주는 작고 연약한 소녀인 명선이를 상징한다.
- 25 '나'는 부서진 다리 끝에 혼자 갔다가 명선이가 숨겨 놓은 금반지가 든 헝겊 주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 26 '나'는 헝겊 주머니 속의 금반지가 명선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놀라 이를 떨어뜨린 것이다.
- 27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각으로 사건을 관찰하고 있으며, 명선이가 죽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다.

핵심 포인트

p.45~53

핵심 포인트

- | | |
|-------------------|-----------------|
| 01 짐짝, 쓰레기 | 02 폭격, 두려움 |
| 03 어머니 | 04 금반지, 죽음, 이기심 |
| 05 회상, 쥐바라송꽃, 이기심 | |

소주제

- | | |
|----------|----------|
| 발단 1 소녀 | 발단 2 인민군 |
| 전개 2 금반지 | 위기 소유권 |
| 절정 죽음 | 결말 금반지 |

작품 한눈에 보기

p.54

사투리	어린이	전쟁	금반지	헝겊
관찰자	전쟁	금반지	명선이	죽음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5

01 ② 02 ⑤ 03 ⑤ 04 '호주기'는 6·25 전쟁 때의 전투기이므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이다.

- 01 이 글에서 '나'는 명선이라는 주인공을 관찰하여 사건을 전달하는 보조적인 인물이다.
- 02 명선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행기의 폭음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명선에게서 금반지를 얻어 내려는 어른들의 탐욕이다. 그것이 명선으로 하여금 만경강 다리에 금반지를 숨기게 했기 때문이다.
- 03 금반지가 든 주머니를 강물에 떨어뜨리는 설정을 통해 어른들의 탐욕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고 있다.
- 04 호주기는 6·25 전쟁 때 참전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투기이다.

(3) 수난시대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6

아들 고등어 다리 외나무다리 팔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6

1 ② 2 ④ 3 ③ 4 ④ 5 ③ 6 ④ 7 ③ 8 ⑤ 9 ⑤ 10 ⑤
 11 ⑤ 12 ② 13 ③ 14 ② 15 ④ 16 이끼 낀 나무토막 17 ③
 18 ② 19 꽤액 기차 소리였다. 20 ① 21 ③ 22 ⑤ 23 ④
 24 ② 25 만도는 웃지를 앓았다.,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똑똑한 얼굴, 무거운 신음 소리,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26 ④ 27 ③
 28 ① 29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뎡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대겠나, 그제?" 30 ④ 31 극복 32 ③ 33 ③

- 1 이 글은 작가가 현실을 바탕으로 꾸며 낸 소설이다.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은 수필이다.
- 2 만도는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지만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고 한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3 만도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기쁘지만 병원에서 나온다는 말에 혹시 자신처럼 불구가 되었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 4 만도는 주막을 지나면서 손님이 있는 듯해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했다.
- 5 만도는 예전에 술에 취해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굴러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외나무다리를 조심하는 것이다.
- 6 [A]는 만도가 외나무다리에서 물에 빠졌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으로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 물에 빠진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한쪽 팔이 없는 만도의 모습은 그의

신체적 결함을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7 만도는 정거장에 도착하여 과거 징용에 끌려가던 때를 회상하고 있다.
- 8 만도는 오랜만에 돌아오는 아들 진수를 생각하며 고등어 한 손을 샀다.
- 9 이 소설에서 '정거장 대합실'은 만도가 자신이 징용에 끌려가던 때를 회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이를 기점으로 과거 회상으로 넘어간다.
- 10 만도는 배 멀미도 심하게 하지 않았고, 고된 노동 환경에서도 쓰러지거나 하지 않았다.
- 11 만도는 섬으로 징용을 가서 일본의 전쟁 준비를 위해 비행장을 닦는 강제 노동을 하였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은 일본의 산업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 준비를 위해 징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2 만도는 강제 징용에 끌려가면서도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 사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징용을 가면서도 황혼을 보고 감탄하는 등 단순한 성격의 보여 준다.
- 13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14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에서 '그런 때'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불기 전에 비행기가 달려들 때'를 의미한다.
- 15 ㉞은 불을 댕기는 만도의 행위일 뿐 만도의 불행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 16 만도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후 자신의 한쪽 팔뚝이 잘려 '이끼 낀 나무토막'처럼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한다.
- 17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만도의 모습은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의 비극을 상징한다.
- 18 이 소설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20 만도는 아들 진수를 찾지 못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 21 만도는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을 보고 놀람, 분노,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22 ㉠~㉣는 인물의 표정, 목소리 등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 23 '아마 이처럼 똑똑한 얼굴을 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처음일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만도가 주막집에 들르며 무뚝뚝한 얼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4 만도는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을 보고 놀람, 분노, 절망감을 느꼈으나, 주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조금 누그러진다.
- 25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아들을 만나고 난 뒤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평소와 다른 태도로 주막을 들르게 된다.
- 26 ㉔에서 만도가 좋은 기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들 진수가 불구가 되어 돌아온 상황이 속상하기 때문이지, 불구인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 27 이 글에서 사투리의 사용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 28 만도와 진수의 대화에서 만도는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9 만도는 집에 앉아서 할 일은 진수가 하고, 돌아다닐 일은 본인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30 한 팔로 '고등어'를 들고 소변을 보는 장면에서 '고등어'는 만도가 팔이 하나 없음을 부각시키며 진수가 아버지를 자연스레 도와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31 한쪽 팔을 잃은 만도가 다리 한쪽을 잃은 아들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만도의 한쪽 손에 들려 있던 고등어를 진수가 대신 받아 들어 주는 것은 화합을 통해서 자신들(민족)의 수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2 [A]에서는 혼잣말을 통해 서로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인물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33 만도 부자는 서로 화합하여 외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너고 있으므로 ㉔이 수난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 민족사의 비극을 암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핵심 포인트 p.59~66

핵심 포인트

01 불안, 애정	02 비극성, 회상
03 징용	04 해소
05 외나무다리	

작품 한눈에 보기 p.67

징용	수난	고등어	외나무다리	극복
----	----	-----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8~69

01 ④	02 ⑤	03 ⑤	04 6·25 전쟁
05 ④	06 ⑤	07 ②	08 우리 민족이 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1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소설 밖에

존재한다.

- 02 전체 내용상 아들 진수는 아버지인 만도의 한쪽 팔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⑤와 같은 심리는 적절하지 않다.
- 03 만도는 일제 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한쪽 팔을 잃게 되었다.
- 04 진수는 6·25 전쟁 때 군대에 징집되어 싸우다가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 05 작가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서 만도와 진수 부자(父子)가 이대(二代)에 걸쳐 겪어야 했던 수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을 되돌아보는 한편, 둘이 힘을 합쳐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민족적 비극에 대한 극복 의지를 전하고 있다.
- 06 만도와 진수 부자(父子) 앞에 놓인 '외나무다리'는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며, 이를 힘을 합쳐 건너는 모습에서 고난 극복 및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 07 이 소설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문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작품이다. 사투리의 사용과 사건의 전개 속도는 연관성이 없다.
- 08 만도 부자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 시대적 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만도 부자는 시대적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4) 토끼전

잠깐! 소설 미리보기 p.70

피 권위적 서민(백성) 소신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1~77

1 ② 2 북해 용궁 3 용왕 4 토끼의 간 5 ⑤ 6 절망감 7 ② 8 ⑤ 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① 14 대개 수궁은 육지의 사정에 밝지 못한 까닭에 15 토 선생 16 ④ 17 ⑤ 18 ④ 19 ④ 20 ② 21 ② 22 ③ 23 ① 24 ③

- 1 고전 소설은 사건 전개가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 2 바닷속에 용왕이 사는 궁이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북해 용궁'은 상상의 공간이다.
- 3 '과인'은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이다.
- 4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꺼내려고 하는 용왕과, 살기 위해 자신의 간을 지키려고 하는 토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전개된다.



- 5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목숨은 하찮게 여기는 용왕의 모습은 부패한 지배 계층의 횡포를 상징한다.
- 6 (나)에서 토끼는 별주부와 함께 용궁에 올 때까지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다)에서 용궁에 도착하여 용왕이 자신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하자 절망하고 있다.
- 7 토끼는 위급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 8 ⑤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이나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9 토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연한 척하면서 용왕을 속이고 있고, 용왕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초조해하고 있다.
- 10 토끼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꾀를 내어 태연함을 잃지 않고 능숙한 말솜씨로 용왕을 속이고 있다.
- 11 토끼는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있다.
- 12 용왕은 권위적이면서도 어리석은 지배 계층을 상징하고, 토끼는 힘은 없지만 지혜로운 백성을 상징한다.
- 13 토끼의 말에 따르면 하순(보름에서 그믐까지)은 배에서 간을 꺼내 감춰 두는 시기이므로 토끼는 현재 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 14 용왕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육지 동물들을 잘 몰라서 토끼의 말에 속은 것이다.
- 15 용왕은 토끼를 달래어 간을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 호칭을 ‘너’에서 ‘토 선생’으로 바꾸었다.
- 16 용왕은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면모를 보여 준다.
- 17 자가사리의 등장으로 사건의 흐름이 바뀌거나 반전되지는 않는다.
- 18 ‘전전반측(輾轉反側)’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토끼는 호사스런 용궁 생활에 대한 아쉬움과 용왕을 속인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19 ‘하릴없이’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이’라는 뜻이다.
- 20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 용궁을 빠져나가는 것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 21 (타)에서 별주부가 하는 수 없이 명을 받들었다는 표현을 통해 토끼와 육지에 다녀오라는 용왕의 명이 내키지는 않지만 받아들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2 ①은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의 기쁨을 나타낸 표현으로 ‘새’와

‘범’은 모두 토끼를 비유한다.

- 23 (거)에서 별주부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자결한 충직한 관리이지만,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이기도 하다.
- 24 용왕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죽는 것으로 보아, 현재 이기적인 지배 계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며, 민중들의 삶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생각이 드러난다.

핵심 포인트

p.71~77

핵심 포인트

01 비현실성	02 이기적
03 어리석다, 충성심, 불안함	04 지혜, 욕심
소주제	
발단 용궁	전개 용왕
절정 토끼	결말 탈출, 자결, 죽음

작품 한눈에 보기

p.78

의인화	절망감	충성심	용왕	간
-----	-----	-----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9~80

- 01 ⑤ 02 ④ 03 ① 04 힘없는 피지배층(백성), 신분의 차이가 있었으며, 지배 계층의 횡포가 심했다. 05 ⑤
- 06 ③ 07 ②

- 01 이 글은 ‘토끼, 자라, 자기사리’ 등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당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 02 용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토끼는 힘없는 백성으로, 토끼의 경우 지위와 상관없이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 03 (나)에서 토끼는 별주부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별주부의 말에 속아 죽을 고비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04 용왕은 이기적이고 어리석지만 절대적인 권리를 누리던 지배층을, 토끼는 힘없는 백성, 별주부는 지배층에 충성하는 관리층을 상징한다. 용왕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희생하려 하므로 이를 통해 당대 지배 계층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횡포를 짐작할 수 있다.
- 05 별주부는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죽음을 택한 인물이다.
- 06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방법으로,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즐거움, 교훈 등의 효과에 주목한다.
- 07 <보기>에서는 별주부의 충성심을 인정하고, 화타를 통해 용왕을 살리고 있다. 이를 통해 충성심을 바탕으로 지배 체제

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희곡, 시나리오

핵심 체크 | p.81~82

1 공간적, 등장인물 2 지시문 3 ○ 4 대사, 사건 5 ○ 6 X

개념 확인 문제

p.83

1 갈등, 대사, 장면, 무대 2 (1) ㉠, (2) ㉡, (3) ㉢ 3 ① 4 ④ 5 ⑤
6 ④ 7 서양식, 갓, 서양

(1) 와이엠시에이(YMCA) 야구단

잠깐! 희곡 미리보기

p.84

야구 신분 남녀 일본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5~90

1 ② 2 ① 3 ④ 4 ③ 5 ③ 6 ① 7 ④ 8 ③ 9 ① 10 ④
11 ⑤ 12 ① 13 ① 14 ④ 15 ① 16 ④ 17 ④ 18 ②

- 1 시나리오에도 해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무대'는 희곡에서만 나타난다.
- 2 '시점 솟'이란 특정 인물의 눈에 비친 풍경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다.
- 3 호창 부의 말로 볼 때 호창이 잘못을 저질러서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다. 호창은 아버지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 4 호창 부는 큰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호창에게 서당을 물려주려는 것이다.
- 5 페닝은 카메라를 가로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기법을 활용하여 야구를 배우기 위해 태화관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6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성한이 고개를 숙이고 병환이 불쾌해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사람들에게는 신분 의식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7 'CUT TO'는 화면이 겹치지 않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 8 정림의 등장과 설명에 '말세'라고 말하거나 다른 어른을 불러 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9 정림은 자신을 공으로 맞힌 호창에게 피식 웃으며 말하고 있으므로, 냉담한 태도로 대한다고 볼 수 없다.
- 10 광태와 호창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다.
- 11 하회탈은 얼굴에 공 맞는 것을 막아 주는 포수 마스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2 호창이 주자 은을 쫓은 것은 우연일 뿐, 야구 규칙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 13 호창 부는 신문물에 대해 '짓', '쌍것들'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14 '내레이션'이 시나리오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 15 호창은 '4'를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불길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한자 문화권에서의 해석이다.
- 16 병환은 성한이 던진 공을 상놈이 던진 공이라고 말하며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 17 정림은 성한과 병환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는 신분 의식을 씩씩해하고 있다.
- 18 INS.는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어 넣는 것이다. 기사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클로즈업이다.

작품 한눈에 보기

p.91

실화	사실성	갈등	벽보	연승
신문물	전통문화	정림	여성	세태
영어	머슴	여성	병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2~93

-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④
- 06 씩씩한 07 전통적인 문물과 신문물이 함께 뒤섞여 있는 과도기이다.
- 01 재철이 다른 어른들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 정림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정림이 여자이기 때문이다.
- 02 호창의 부는 호창의 문리를 흠족해하지 않고 있으며, 호창은 아버지가 자신을 형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섭섭해하고 있다.
- 03 정림이 야구단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말세다'라고 말하며 탐탁치 않아 한다.
- 04 호창은 자신이 공을 제일로 잘 쳐서 4번을 맡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비 사(士)'라고 말하며 타석으로 향하는 것이다.
- 05 정림은 병환이 성한의 공을 받지 않는 것이 신분 의식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을 주고받는 위치를 바꾼 것이다.

- 06 병환이 성한의 공을 받지 않은 것은 성한이 과거에 머슴이었기 때문이다. 정림은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 의식이 남아 있는 현실에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 07 서양식 옷차림과 전통적인 옷차림의 사람들이 전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은 전통 문물과 서구 문물이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04 수필

핵심 체크 | p.94~95

1 수필 2 ○ 3 ○ 4 인생관 5 기행문 6 설

개념 확인 문제 p.96

- 1 (1) 체현, 가치관, (2) 개성, (3) 지혜 2 (1) ㉠, (2) ㉠, (3) ㉠, (4) ㉠ 3 (1) 일상적, (2) 비격식적, (3) 논리적, (4) 교훈적, (5) 서사적 4 (1) ㉠, (2) ㉠, (3) ㉠, (4) ㉠ 5 ㉢ 6 ㉡

(1) 이옥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7

1 ㉠ 2 ㉠: 행량채, ㉠: 사람의 몸, ㉠: 나라의 정치 3 ㉠

- 1 이 글은 이규보의 설(說)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이치를 밝히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글이다.
- 2 이 글의 글쓴이는 행량채를 수리하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람과 정치에 적용하고 있다.
- 3 이 글의 글쓴이는 잘못을 알고 바로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98

교훈 수필 나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9

01 ㉠ 02 ㉠ 03 ㉡ 04 건우
05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 01 '설(說)'은 현대의 수필과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경험에서 깨달은 내용을 적은 수필이다.
- 02 (가)에서 글쓴이는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며 바로 행량채를 고치지 않아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 03 (다)에서 글쓴이는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고 하였다.

- 04 글쓴이가 행량채를 수리하며 느낀 것은 비록 작은 잘못이라도 곧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해가 된다는 것이다. 즉 글쓴이는 잘못을 즉시 고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05 글쓴이는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고치는 자세의 중요성을 행량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다.

(2) 열보다 큰 아홉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0~101

1 ㉠ 2 ㉡ 3 ㉠ 4 ㉠ 5 ㉠ 6 ㉡ 7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 1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이 알맞은 경우에는 '아홉 구'가 아니라 '열 십'을 쓴다.
- 2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한 수'는 완전한 수이자 성공을 한 수인 '열'이다.
- 3 ㉠은 단지 '열'이라는 숫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4 우리 조상들은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였기 때문에 '아홉'을 사랑했다.
- 5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도 여유가 없이 꼭 찬 수는 '열'이다.
- 6 ㉠에서는 '아홉'이 '열'보다 의미 있음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반복법, 열거법). ㉡에서도 '해야 숫아라'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7 글쓴이는 중학생이 아홉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100~101

핵심 포인트	
01 아홉	02 가능성
03 아홉	
소주제	
처음 아홉	중간 가능성
끝 아홉	

내용 한눈에 보기 p.102

열 아홉 구곡간장 아홉 강조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3

01 ㉢ 02 ㉡ 03 ㉢ 04 ㉢

- 01 ③은 '아홉'에 대한 설명이다.
- 02 글쓴이는 청소년에게 자신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 괴로울 때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홉'처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 03 ㉠은 문장의 순서에 변화를 줌으로써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원래의 글과 ㉠ 모두 친근한 어투를 쓰고 있다.
- 04 묻고 답하듯이 말하는 것은 문답법에 해당하는데, ㉡에서 글쓴이는 '그러면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라고 묻고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 | 읽기

0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06

1 근거 2 논증 3 X 4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06

1 ④ 2 귀납 3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

- 1 보편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것은 연역 논증이다.
- 2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3 <보기>는 연역이 사용된 논증으로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마지막 문장의 구체적 사실을 도출해 내고 있다.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7~108

1 ③ 2 ⑤ 3 ④ 4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5 ② 6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 7 일반적, 택배 기사, 연역 8 ⑤

- 1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배달이 빨라져서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의미이다.

- 3 택배 기사들의 일 년 노동 시간은 3,848시간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 시간보다 1,824시간 더 길다.
- 4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 5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 6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은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을 의미한다.
- 7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를 통해, 구체적인 택배 기사들의 권리를 도출해 내고 있다.
- 8 글쓴이는 끝부분에서 택배 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고 말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107~108

핵심 포인트

01 배달 공화국

02 귀납, 과도한 노동

03 반성, 연역

내용 한눈에 보기

p.109

빠른	불편	개별적	교통사고	수입
귀납	일반적	개별적	연역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0~111

01 ⑤ 02 ④ 03 ⑤ 04 택배 기사들은 저렴한 배송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05 ⑤ 06 ⑤ 07 ③

- 01 (다)에서 택배 기사들은 유류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택배 한 건당 평균 8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①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가운데 도로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이다.
 - ② 택배 기사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 평균 휴무일이 0.152일이다.
 - ③ 택배 기사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OECD 연간 노동 시간의 두 배가 넘는다.
 - ④ 74.1%는 설문 응답자 중 몸이 아픈 날 일을 한 경험이 있는 택배 기사의 비율이지, 몸이 아픈 날에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아니다.
- 02 '택배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 03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이란,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 부담을 택배 기사들이 떠안고 있다.
- 04 더 싸게 배달한다는 것은 배송비가 저렴하다는 것이고, 더 많이 배달한다는 것은 노동의 양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 05 (가)의 글쓴이는 택배 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작은 불편'이란 느린 배송으로 인한 불편을 말한다.
- 06 ㉠에는 일반적인 사실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는 포유류가 어미의 배로부터 새끼를 낳는다는 일반적인 사실부터 원숭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된다.
- 07 구체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 내는 논증 방법은 귀납인데, (나)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유추이다.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인공 빛의 두 얼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2~114

- 1 ① 2 멜라토닌의 합성이 중단된다. 3 ⑤ 4 ① 5 ①, ②
 - 6 자연의 시계대로 살아가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불필요한 불을 끄자.
- 1 (가)는 주장하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인공조명의 발달로 인해 대낮처럼 환한 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2 과도한 인공 빛에 노출되면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이 중단된다.
 - 3 밤의 인공 빛이 낮과 밤의 구분을 방해하여 벌의 비행 능력을 방해하고, 철새의 이동 경로 이탈을 가져오는 등 동식물에게 혼란을 준다.
 - 4 (나)~(마)에서는 빛 공해가 인간과 동식물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제시한 후 '빛 공해는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낸 귀납 논증이다. ②, ③, ⑤ 연역 ④ 유추
 - 5 (바)에서는 일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③, ④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 법칙을 이끌어 내는 귀납이 사용되었다. ⑤ 두 대상 간의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가 사용되었다.
 - 6 인공 빛이 미치는 악영향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인공 빛 줄이기에 모두가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112~114

핵심 포인트

- 02 생체 리듬
- 03 악영향, 귀납
- 04 연역

내용 한눈에 보기

p.115

근거	사람	동물	식물	귀납
인간	연역	자연	불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6~117

- 01 ⑤ 02 ③ 03 ① 04 지나친 인공 빛은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 05 ④ 06 ④ 07 ①
- 08 ② 09 [A]에는 일반적 법칙으로부터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 논증이 쓰였지만, <보기>에는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쓰였다.

- 01 (마)에서는 빛 공해가 식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제시한 뒤 앞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빛 공해가 사람,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밝히고 있다.
- 02 인간도 인공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각종 증상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겪는다.
- 03 (나)~(다)에서는 빛 공해가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사례를, (라)에서는 빛 공해가 동물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에서는 빛 공해가 식물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사례를 제시한 뒤 앞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빛 공해가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반 법칙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귀납은 반대 사례가 발견되면 오류가 된다.
 - ㄴ, ㄷ 연역 ㄹ 유추
- 04 인공 빛이 사람과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나친 인공 빛이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05 (가)와 같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06 (가)에서는 인공 빛이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인공 빛을 줄여 자연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술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가)에서 글쓴이는 빛 공해로 인해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불을 끄자고 주장하고 있다.
- 08 [A]에는 '지구상에서 ~ 살 수 있다.'(대전제), '인간은 ~ 생명체이다.'(소전제), '따라서 ~ 것이다.'(결론)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ㄱ, ㄷ 귀납 ㄹ 유추

09 ㉠은 '지구상에서 ~ 살 수 있다.' '인간은 ~ 생명체이다.'라는 일반적 사실에서 '따라서 ~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보기>는 봉어, 광어, 도미의 개별적 사실에서 '물고기'에 대한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 냈다.

02 비교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8

1 관점 2 형식 3 비교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8

1 ㉢ 2 ㉠

- 1 '놀부'라는 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평가한 감상문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 2 글쓴이가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썼는가는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젓가락으로 시작하는 밥상머리 교육 /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9~122

1 ㉢ 2 ㉡, 관절, 근육 3 ㉣ 4 ㉠ 5 ㉤ 6 ㉣ 7 ㉤ 8 <보기>는 '올바른 젓가락질'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취하지만 이 글은 비판적 관점을 취한다.

- 1 가능성 젓가락은 편리함만 추구하고 젓가락의 숨겨진 힘은 깨닫지 못한 장난처럼 보인다고 말한 것에서 가능성 젓가락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관점이 드러난다.
- 2 젓가락질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 유아기 및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유익하다. 또한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려면 손가락의 관절과 근육의 정확성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 3 정교하고 힘 있는 손놀림으로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것이지 젓가락질이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 4 올바른 젓가락질의 효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5 표준 젓가락질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6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중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젓가락질 기술은 있지만 이것이 표준 젓가락질 방법은 아니다.
- 7 (마)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손가락이 더 중요했다는 점을, (바)에서는 젓가락 사용법이 정교하게 발달한 것은 일본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젓가락질을 잘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잘못된 시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된다.

8 <보기>는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글은 올바른 젓가락질은 표준을 정할 수도 없고, 젓가락질을 잘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일본의 풍속이라고 말하며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다.

핵심 포인트

p.119~120

핵심 포인트

- 01 이상한 02 성장 발육, 근육, 집중력, 긍정적
03 실력

핵심 포인트

p.121~122

핵심 포인트

- 01 정식, 식사 예절 02 표준, 손가락, 일본
03 젓가락질, 부정적

내용 한눈에 보기

p.123

논설문	긍정적	비판적	긍정적	논설문
구체적	직접적	편지글	친근한	솔직하고
관점	형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4~125

01 ㉢ 02 ㉣ 03 ㉢ 04 젓가락질은 뇌를 자극하는 과정이며, 손가락 관절과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정교한 젓가락질 덕분에 손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나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05 ㉣ 06 ㉣ 07 ㉡

08 • 공통점: '젓가락질 교육'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
• 차이점: 이 글에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는 관점이 나타나는 데 반해, <보기>에는 올바른 젓가락질을 위한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 01 글쓴이는 쇠젓가락질에 숨겨진 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02 ㉣는 표준 젓가락질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담긴 표제로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을 중요시하는 글쓴이의 관점과 상반된다.
- 03 <보기>는 이 글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젓가락질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4 글쓴이는 올바른 젓가락질의 효과를 제시해 올바른 젓가락질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05 화제가 비슷해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주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 06 글쓴이는 정식에 가까운 젓가락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젓가락질을 잘 못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젓가락의 필요성을 담은 ㉣는 글쓴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7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숟가락 위주였으므로, 올바른 젓가락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 08 이 글과 <보기>에는 모두 '젓가락질 교육'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보기>에서는 젓가락질 교육을 '놓치고' 있다고 표현하여 젓가락질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젓가락질이 서투르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글과 <보기>는 서로 관점이 다르다.

03 다양한 해석 비교하며 감상하기

핵심 체크 | p.126

1 독자 2 작품 3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6

1 ④ 2 ④

- 1 작품을 현실과 관련지어 감상하는 방법은 작품에 현실 세계와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 2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에도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나비의 허리를 보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7~129

1 ③ 2 ⑤ 3 모더니스트라는 작가의 작품 경향에 주목하여 해석하고 있다. 4 청무발, 무꽃 5 ① 6 ② 7 바닷물의 소금기에 나비의 날개가 절었다, 나비가 날개를 기우뚱하게 절었다. 8 ③ 9 때가 이른 것들이며, 하얗고 길고 가늘게 휘어 있다. 10 ④ 11 ③ 12 ①

- 1 시 「바다와 나비」에 대한 글쓴이의 해석만을 제시하고 있다.
- 2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이며, 화자의 심리 변화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 3 ㉠에서 '모더니스트'라는 작가의 작품 경향에 주목하여 시에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 4 '나비'는 삼월의 푸른 바다를 청무발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다에서 무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바다로 간 것이다.
- 5 나비가 깨달은 것은 바다가 청무발이 아니고 푸른 게 모두 청무발이 아니라는 것이지, 청무발이 모두 푸르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다.
- 6 다른 대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공주'에게만 해당된다.

- 7 '절다'라는 시어의 두 가지 의미를 바탕으로 시구를 해석할 수 있다.
- 8 나비가 지쳐 돌아온 것은 나비를 나비에게 하는 우아한 날개가 절어 존재 이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 9 어린 나비나 초사흘 달인 초생달은 모두 때가 이른 것들이며, 하얗고 기다랗고 가느다랗게 휘어 있다.
- 10 '나비'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대적 현실 속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인 자신의 자화상 또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모습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 11 ㉠에서는 시가 창작되었던 근대 혹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근거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 12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들이 보았을 때 근대 혹은 시대라는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이었을 것이다.

핵심 포인트

p.128~129

핵심 포인트

- 02 시각적, 무꽃, 물결(바다) 03 절다, 공주
- 04 냉혹, 근대, 지식인

내용 한눈에 보기

p.130

바다	근대	좌절감	작가	작품 자체
현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1~132

01 ③ 02 ⑤ 03 ⑤ 04 나비는 푸른 바다가 청무발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날개만 절어서 돌아왔고, 이를 통해 바다가 청무발이 아니고 푸른 것이 모두 청무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05 ② 06 ② 07 '바다'는 근대 혹은 일제 강점기라는 현실, '나비'는 시대 현실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던 시인 자신 또는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을 의미한다.

- 01 이 글은 비평문으로 비평하려는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 02 흰나비가 바다의 실체를 겪고 지쳐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나비가 바다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흰나비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나)에서 시에 흰색과 청색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난 것은, 시인이 이미지를 중시한 모더니스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04 '나비'는 바다를 본 적이 없고 수심과 물살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푸르게 펼쳐진 것을 모두 청무발이라고 생각하여 바다로 내려간 것이다. 하지만 '나비'는 바다에 날개가 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바다가 청무발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

재하는 푸른 것이 모두 청무밭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05** 나비의 허리가 초승달의 허리와 오버랩된다는 것은 형태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둘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06** <보기>에서는 나비가 바다로 내려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 글에서도 나비는 새롭고 먼 곳을 향해 비상하다가 날개가 절은 채 지쳐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 바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해석한 것은 아니다.
- 07** (라)에서는 '바다'를 근대 혹은 일제 강점기, '나비'를 시인 자신 또는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이 시가 창작되었던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3 | 문법

01 음운의 체계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4~136

- 1 ○ 2 ○ 3 모음 4 최고점 5 X 6 나 7 ○ 8 위치 9 목청 10 나 11 ○ 12 X 13 파찰음 14 세기 15 ㅁ 16 된소리, 거센소리

10 잇몸소리가면서 비음인 음운은 'ㄴ'이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7~138

1 음운의 개념 이해하기

- (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 바, 사 / 파, 나 / 가, 오

2 모음 체계 이해하기

- 받지 않고 / 받고
- 아, 에, 이, 예, 오, 우, 유, 유, 이 / 파, 카, 프, 피, 헤, 케, 카, 새, 거, 레, 나
- 이, 기, -, - 혀의 높이가 높음.
- 예, 사, 나, - 혀의 높이가 중간임.
- 헤, 파 - 혀의 높이가 높음.

3 자음 체계 이해하기

- 마, 바, ㅁ, 피 - 두 입술
 - 나, 다, 따, 테, 리, 사, ㅍ - 혀끝과 윗잇몸
 - 자, 짜, ㅌ - 혀바닥과 센입천장
 - 가, 기, 카, 오 -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 ㅎ - 목청
 - 가 / ㅁ / 테, 카 / 사 / 자 / 짜 / 나, 오
- (1) 아, 에, 예, 이, 이, 유, - / 이, 기, 예 / -, 유, 나, 파 / 아, 기, 타, 헤, 이, 나, - / 기, 이, 유, - / 헤, 나, 파 / 파

- (2) 사, 나, 기, 리, 짜, 다, 모, 자, 가, 테, 피, 오 / 기, 다, 가, 테, 피 / 사 / 자, 짜 나, 모, 오 / 리

4 소리의 길이

- (1) 가. 밤(粟) / 나. 말(語) / 다. 병(病)
 (2) 가. [추운바메따뜨탄바:물까머꺼따]
 나. [말타면경마자피고십따는마:리인따]
 다. [이병에는그병:을고칠쑤인는야기드러인따]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7~138

1 ④ 2 ② 3 ③ 4 단어를 발음할 때의 소리의 길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이다.

- '허리'의 초성이 'ㄹ'이었다 하더라도, '머리'가 되어 '서리'와 뜻이 구별되므로 이때 'ㄹ' 또한 음운이다.
- 'ㄴ'은 고모음, 'ㄷ'은 중모음, 'ㅌ'는 저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
- 거칠고 거센 느낌을 주는 것은 'ㅌ'이고,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ㄷ'이다.
-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말'을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39

- | | |
|--|--|
| 01 음운, 자음, 모음, 길이 | 02 자음, 모음 |
| 03 단모음, 이중 모음 | 04 전설 모음, 후설 모음 |
| 05 원순 모음, 평순 모음 | 06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
| 07 ① 최고점, ② 입술, ③ 높낮이, ④ ㄱ, ⑤ ㅌ, ⑥ 나, ⑦ | |
| 08 ① -ㄹ, ② -ㄷ, ③ -ㄱ, ④ -ㄴ, ⑤ -ㄷ | |
| 09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 |
| 10 ① -ㄱ, ② -ㄷ, ③ -ㄴ | 11 ① 바, ② 다, ③ 따, ④ 기, ⑤ 피, ⑥ ㅁ, ⑦ ㅎ, ⑧ ㅌ, ⑨ 비음, ⑩ ㄱ, ⑪ 유음, ⑫ ㄹ |
| 12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 13 음운 14 [벌:], [벌], 뜻, 음운 |

-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포함된다
-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온다.
-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단모음이다.
-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다.
-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모음은 원순 모음이다.
-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된다.
-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가 '된소리'이고, 거칠고 거센 느낌을 주는 소리가 '거센소리'이다.



13 국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명확하게 서로 다른 소리로 구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0~142

- 01 ㉓ 02 ㉕ 03 ㅏ, ㅑ, ㅓ, ㅕ, ㅗ 04 ①
- 05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 06 ㉓ 07 ㉓
- 08 ㄴ, ㅁ, ㅇ 09 ㉓ 파열음, ㉔ 마찰 10 소리 나는 위치 11 ㉔
- 12 ① 13 빵 14 ㉕ 15 ㉔
- 16 ‘ㄴ, ㅁ, ㅇ’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비음인데, 코를 막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17 ㉓
- 18 [눈:물], [눈물] 19 ㉓ 20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 를 받지 않고 소리 나는 데 비해, 자음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으며 소리 난다. 21 ㉔ 22 ㉓의 ‘ㅅ’는 [ㅅ]로, ㉔의 [ㅅ]은 각각 [달], [탈], [탈]로 발음해야 한다. 이로 보아 우리말 자음은 외국어와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 01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 02 ‘가다’와 ‘가리다’는 하나의 음운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리’라는 음절 하나만큼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으로 볼 수 없다. ㉔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되므로 최소 대립 쌍으로 볼 수 있다.
- 03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는 존재로 자음으로 보지 않지만, 중 성의 ‘ㅇ’은 자음에 해당한다.
- 04 저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인 모음은 ‘ㅏ’와 ‘ㅑ’뿐이다.
- 05 ‘ㅏ’는 저모음이고, ‘ㅓ’는 중모음이며, ‘ㅕ’는 고모음이다. 따 라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
- 06 ‘ㄴ’은 단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붙임] 규정에 의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 07 길게 발음했을 때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다.
- 08 <보기>는 비음에 대한 설명으로, 비음에는 ‘ㄴ, ㅁ, ㅇ’이 있다.
- 09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소리를 내는 자음은 ‘파열 음’이다. 또한 마찰음과 파찰음은 모두 공기에 마찰을 일으 키며 내는 소리이다
- 10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 리는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이다.
- 11 ㉓에 들어갈 자음은 ‘잇몸소리’로 ‘ㄷ, ㅌ, ㅊ, ㅅ, ㅆ, ㄴ, ㄹ’ 이다.
- 12 (가)는 예사소리로 이루어진 단어들로, 된소리가 쓰인 (나)의 단어들이나 거센소리가 쓰인 (다)의 단어들에 비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 13 초성은 ‘ㅁ’이고, 중성은 ‘ㅏ’이며, 종성은 ‘ㅇ’이다.

- 14 노랫말에 쓰인 자음 중에 파열음은 ‘ㅆ, ㅌ, ㅊ, ㅅ’이다.
- 15 딸은 ‘게’에 대해 말하면서 [게] 발음을 [개]로 하여 아빠의 오 해를 불러일으켰다. ‘개’는 중모음, ‘게’는 저모음이므로 결국 중모음 으로 발음해야 할 것을 저모음으로 발음해서 오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16 ‘ㄴ, ㅁ, ㅇ’은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 서 소리를 내는 비음이다. 따라서 발음할 때 코를 막으면 코를 통과하는 공기가 막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 17 ‘배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배’와 사람의 신체 부위 중의 일 부인 ‘배’는 둘 다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되지 않는다.
- 18 ‘눈이 녹아서 된 물’을 뜻하는 ‘눈물’의 ‘눈’은 길게, ‘눈물샘에 서 나오는 분비물’을 뜻하는 ‘눈물’의 ‘눈’은 짧게 발음한다.
- 19 [다끄면]으로 발음해야 할 것을 [따끄면]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 20 여학생은 ‘아’를 발음하고 있는데, ‘ㅏ’가 모음이기 때문에 발 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고 있 다. 이와 달리 선생님은 ‘악’을 발음하고 있는데, 종성이 자음 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고 있 다.
- 21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난다거나 합성어의 경우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긴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볼 때, 모음 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위치에 따라 달라 짐을 알 수 있다.
- 22 ㉓에서는 ‘ㅅ’를 [ㅅ]로, ㉔에서는 ‘달’, ‘딸’을 [탈]로 발음하고 있다.

02 문장의 짜임과 양상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3~145

- 1 ○ 2 X 3 보어, 부사어 4 바다를,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5 ○
- 6 X 7 문장 성분 8 홀문장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났 기 때문이다. 9 서술절 10 X 11 는 12 소리 없이, 부사절
- 4 ‘바다를’은 목적어, ‘보니’는 서술어, ‘기분이’는 주어, ‘상쾌해 졌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 ‘넓은’은 관형어이므로 부속 성분이다.
- 8 주어는 ‘막내가’이고 서술어는 ‘청소했다’로, 주어와 서술어 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홀문장이다.
- 12 안긴문장은 용언인 ‘내린다’를 꾸며 주고 있는 부사절 ‘소리 없이’이다.



1 문장 성분 이해하기

주성분 / 주어, 서술어, 보어
부속성분 /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

문장의 주성분을 알아보자.

- (1) 주어: 하늘이, 지후가 서술어: 파랗다, 달린다
- (2) ① 밥을 / '먹는다'는 서술어 동작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중학생이 / 서술어 '되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 (3) 예시답안 | (2)에서 완성한 문장은 모두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문장이 온전하지 않다.

문장의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을 알아보자.

- (1) 예시답안 | '까만'은 체언인 '모자'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정말'은 용언인 '멋있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 '까만'과 '정말'을 생략해도 문장은 온전하다.
- (3) 예시답안 | '와' 대신 '세상에' 등의 말을 넣을 수 있으며, 이 말은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쓰인다.

2 문장의 짜임과 양상 탐구하기

- (1) 비가 와서 땅이 질다. / 비가 오면 땅이 질다.
- (2)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몹시 내린다.
- (3) 동생은 운동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다.

문장의 확대 방식을 탐구해 보자.

- (1) ㉠ 둘 이상의 출문장을 나란히 이음.
㉡ 한 출문장이 다른 출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음.
- (2) ① 너는 배를 좋아하지만, 나는 배를 싫어한다.
② 나는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른쪽 문장을 절로 바꾸어 안은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절을 가진 안은문장인지 써 봅시다.

- (1) 은우가 노래를 부르기 / 명사절
- (2) 은우가 노래를 부르는 / 관형절
- (3) 은우가 노래를 부른다고 "은우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 인용절

3 표현 의도에 따라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 (2) 앞 문장의 내용이 '그 소설'을 꾸며 주게 하여 어떤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는지를 표현하고 싶었어.

다음 그림을 보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문장을 고쳐 써 보자.

슬기가 보고 싶어 하는

학습활동 응용 문제

1 ⑤ 2 ① 3 ① 4 동생이 소설을 읽는 숙제를 한다.

- 1 <보기>의 문장에 서술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인 목적어는 없다.
- 2 '나의'는 관형어이고, '올해'는 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에 해당된다.
- 3 <보기>의 '먹는다'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①의 안긴문장인 '마음씨가 곱다.'도 안은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4 '어떤 숙제'를 하는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생이 소설을 읽

는다.'가 '숙제'를 꾸며 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 01 문장 성분 02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03 부속 성분
- 04 보어 05 주어, 서술어 06 관형어, 부사어
- 07 독립어, 부름 08 목적어 09 ①-㉠, ②-㉡, ③-㉢, ④-㉣
- 10 관형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1, 홀 11 ①-㉠, ②-㉡
- 12 ① 서술절, ② 관형절, ③ 부사절, ④ 인용절, ⑤ 명사절
- 13 ① 가법지만 ② 가벼워서 ③ 가벼운 14 ①-㉠, ②-㉡

- 01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 02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이다.
- 03 주성분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속 성분이다.
- 04 보어는 서술어 '되다/아니다'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 05 '어떠하다'는 상태나 성질을, '어찌하다'는 동작을 나타낸다.
- 06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은 관형어이고,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은 부사어이다.
- 07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없이 쓰이는 말은 독립어이며, '부름, 응답, 감탄' 등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 08 주성분 중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 01 ④ 02 ① 03 ③ 04 ㉠ 부사어, ㉡ 보어
- 05 ④ 06 ② 07 ⑤ 08 ⑤ 09 꾸며 주는 말이 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10 ②
- 11 ④ 12 ⑤ 13 ⑤ 14 ⑤ 15 ④
- 16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17 ③ 18 ⑤
- 19 ① 20 ② 21 '춤'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다. / 많은 사람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22 ② 23 ③

- 01 ①은 형태소, ②는 단일어, ③은 단어, ⑤는 품사의 뜻이다.
- 02 ㉠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로, '달린다'는 동사에 해당된다.
- 03 '방금'은 용언 '끝냈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속 성분인 부사어이다.
- 04 '내년에는'는 '되고'라는 용언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어이고, '중학생이'는 '되다' 앞에서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으므로 보어이다.
- 05 '새, 독서의, 옛, 모든'은 관형어이고, <보기>의 '열심히'와 '부

지런히'는 부사어이다.

- 06 ㉠을 보면, 명사인 '사과'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 07 ㉡의 '하얀'은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이다.
- 08 ㉢는 부사어 '아주'가 '현'이라는 관형어를 꾸며 주고 있다.
- 09 ㉠과 달리 ㉡에는 '붉은'이라는 관형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을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꾸며 주는 말이 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의 '다른'은 품사가 관형사로서, 체언인 '사람들'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11 밑줄 친 부분은 '독립 성분'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 12 ㉠에서 주어 '나는'은 서술어 '치웠다'와 짝을 이루고 있고, 주어 '동생이'는 서술어 '어지른'과 짝을 이루고 있다.
- 13 ㉢는 '아이들이'라는 주어와 '날리고 있다'라는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고 있다. '예쁜 꽃이 사방에 피어 있다.'는 '꽃이 예쁘다.'와 '꽃이 사방에 피어 있다.'가 결합한 겹문장이다.
- 14 ㉤에서 앞 절의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은 뒤 절의 '영수는 산책을 할 것이다.'의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은 '의도', ㉡는 '원인', ㉢은 '나열', ㉣는 '대조'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문장이다.
- 15 ㉣는 '오빠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장의 내용이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문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16 '비가 왔다.'가 원인, '소풍을 연기했다.'가 결과임이 드러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17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의 안긴문장은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로, '사실'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일'이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우가 노래를 부르는'도 체언 '모습'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9 ㉠에서 '집에 가기'라는 명사절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이른'이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바란다'라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으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1 '춤'과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어색하므로 '추다'라는 서술어를 삽입해야 한다.
- 22 ㉣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져 있다.
- 23 ㉢의 안긴문장은 '관심이 없다'로 특별한 어미의 결합 없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은 관형사로 관형사형 어미 '-니'이 결합한 것이 아니다.

03 통일 시대의 국어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2~154

1 X 2 O 3 문화어 4 한글 맞춤법 통일안 5 남한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만, 북한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6 O 7 X 8 맺돌 9 말다듬기 10 사상 11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었다 12 O 13 X 14 일없습니다 15 겨레말큰사전 16 맞춤법 17 남한에서는 간접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한다.

- 5 남한은 '나룻배'로 보아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나루배'와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11 '나이프'와 '노크'는 외래어인데, 이를 순우리말인 '뱀상칼'과 '손기척'으로 다듬었다.
- 17 남한에서는 '식사 한 번 하자.'라는 간접적인 말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북한 사람은 이를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55~156

1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다음 활동을 하며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정리해 보세요.

- (1) 분단 이후 교류가 없어서 / 서로 다른 맞춤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 남한은 표준어를 쓰고 북한은 문화어를 써서 등
- (2) 의존 명사를 붙여 씀. / 두음 법칙을 인정함. /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 (3)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 망돌, 게사니, 가마치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의미로 쓰는 어휘 - 동무, 세포, 바쁘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 - 팔자, 손기척, 로동영웅, 밥공장

북한의 언어 자료를 살펴보고 남북 언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 (1) 패스트푸드점 / 피시버거 / 에그버거 / 야채샐러드
튀김요리 / 아이스라떼 / 오렌지주스

- (2) 겨울양식 / 고간, 메돼지, 표말

2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으로 인한 어려움

다음 만화에서 선생님의 승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까닭을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질'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 학생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남북 언어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자.

- (1) 달라진 어휘를 뜻풀이에 반영하여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 (2) 남북 언어의 차이가 지속되면 상대방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다음에 고려하여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말해 보자.

남한에서는 지나친 외국어의 사용을 줄여야 하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반영된 어휘들을 순화하거나 다른 어휘로 교체해야 한다.

다음을 고려하여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말해 보자.

- 어문 규범을 통일할 수 있는 공동 연구 기관을 만들어 남북의 규정을 적절히 조화하여 통일안을 만든다.
- 통일 교육의 교과 과정 내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어릴 적부터 교육한다.
-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55~156

1 ㉓ 2 ㉕ 3 ㉗ 4 사회주의 이념이 강하게 반영된 어휘들을 순화해야 한다.

- 1 남한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이용'이라고 쓰는 말을 북한에서는 '리용'이라고 표기한다.
- 2 남한에서는 '피시, 예그'와 같은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이를 '물고기, 닭알'과 같이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3 <보기>를 통해 남한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동물을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휘를 알리고 노력하거나 어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 4 <보기>를 통해 북한에는 사회주의 이념을 지나치게 반영한 어휘들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이질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강하게 반영된 어휘들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57

- 01 정치 02 단어 03 동질성 04 통일안
 05 표준어, 문화어
 06 나룻배, 나루배, 이용, 리용, 의존 명사, 의존 명사
 07 ①-㉑, ②-㉒, ③-㉓, ④-㉔ 08 이념
 09 ①-㉑, ②-㉓, ③-㉒, ④-㉔ 10 ①-㉑, ②-㉒, ③-㉑
 11 괜찮습니다. 12 맞춤법, 단일, 언론
- 01 정치 체제의 차이로 인해 북한의 어휘에 사회주의 이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 02 남북한 모두 띄어쓰기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 03 남북의 언어 차이가 커지면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기 어려워질 것이다.
 - 04 남북한 모두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05 북한에서 남한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어'이다.

06 '나룻배'의 '스'은 사이시옷이며, '이용'은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이다. 또한 '것'은 의존 명사이다.

08 '동무'가 북한에서 혁명위업과 관련된 뜻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1 북한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때 '일없습니다.'라고 한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8~159

- 01 ㉒ 02 ㉓ 03 ㉓ 04 ㉕ 05 ㉕
 06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07 ㉒ 08 ㉔ 09 ㉔ 10 ㉕ 11 승희는 비하의 의미 없이 순수하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이지만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하의 의미를 담아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 01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02 '한톨'과 같은 표기로 보아 북한 언어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를 앞말과 붙여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햄버거', '라떼' 등의 단어를 볼 때 북한도 일부 외래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04 '동무'는 남한과 표기는 같지만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이기 때문에 ㉒에 추가해야 한다.
- 05 '륜전기재'는 '기관차, 여객차, 화차, 자동차 따위와 같은 바퀴로 움직이는 운수 기재'를 의미한다.
- 06 <보기>의 축구 중계를 통해 북한에서는 남한의 '헤딩'에 해당하는 단어를 '머리받기'라는 순우리말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 07 (가)에서 '정윤'은 '클럽, 다이어리, 볼펜'과 같은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한에서 북한에 비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에 비해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긴 상황은 (나)에 해당한다.
- 08 남한은 지나친 외국어의 사용이 문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적 속성을 언어에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09 해설 | <보기>의 자료에서 타인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한 문장 부호는 '《 》'이다.
- 10 '사귀다'는 '교차하다'라는 한자어 대신 사용한 순우리말로, 정치 이념이 영향을 끼친 어휘가 아니다.
- 11 <보기>를 통해 '-질'이라는 접미사의 의미가 남한과 북한이 다를 수 있다. 남한에서 '-질'은 그 직업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비하의 의미가 없다.

4 | 듣기·말하기

01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

핵심 체크 | p.162

1 관심, 요구 2 말하기 불안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2

1 ② 2 ①

- 청중도 말하기에 반응을 보이고 의사를 표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말하기에 참여할 수 있기에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3~168

1 ④ 2 ⑤ 3 ④ 4 ④ 5 ① 6 문제점을 밝힌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흐름이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7 말하기 불안 8 ① 9 ⑤ 10 ④ 11 ⑤ 12 통계, 영상 자료 등에 익숙하다. 13 ④ 14 발표 내용 요약 카드를 확인했다. 15 ⑤ 16 ② 17 ② 18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어떻게 발표를 준비해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발표에 대한 청중의 평가는 발표 전에 분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 청중의 수준을 고려해 이해하기 쉽도록 발표 내용과 표현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것이지 발표 수준에 맞춰 청중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청중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마련하면서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청중이 알고 있는 내용만을 다루고자 한 것은 아니다.
- 제목을 바꾼 것은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 문제점보다 해결 방안이 먼저 제시되면 발표의 흐름이 어색하다.
- 발표를 앞둔 소진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에 앞서 경험하는 불안 증상인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 소진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발표를 망치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 평소처럼 친구들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것이지 평상시의 말투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투를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과 ②은 모두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발언으로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흥미와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소진이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편 청중과 눈을 맞추며 소통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을 빠트리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은 발표에 부담감으로 작용해 말하기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 [A]는 통계 자료, [B]는 영상 자료로 청중들이 통계, 영상 등의 자료에 익숙한 점을 고려해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급식 신호등' 운동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편식하는 식습관을 고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미리 준비한 발표 내용 요약 카드를 확인한 뒤 발표를 이어갔다.
- 발표 과정에서 청중을 고려해 계획한 발표 순서와 방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청중과 소통하고 있을 뿐 청중과 함께 논의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낸 것은 아니다.
- [A]에서는 사진을 제시해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이 발표에서는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중의 기대와 요구를 분석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163~168

핵심 포인트

- | | |
|-------------------------------|-------------------------|
| 01 요구, 관심, 공감 | 02 청중, 관심사, 관심사, 특성, 기대 |
| 03 부담감, 불안함, 긍정적인 | 04 비용, 요약, 질문 |
| 05 비료, 후원, 도표, 영상, 사진, 관심, 이해 | |

내용 한눈에 보기

p.169

공감	특성	관심사	기대	요구
부담감	편안한	연습	쓰레기	처리 비용
환경	비료	후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0~171

- 01 ② 02 ⑤ 03 ④ 04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긴장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발표를 망치면 안 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05 ⑤ 06 ③ 07 ① 08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 01 발표를 시작할 때 점심 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는 것은 청중의 기대와 요구가 아니라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한 것이다.
- 02 문제점보다 해결 방안이 먼저 제시되면 발표의 흐름이 어색하다.
- 03 소진이는 말하기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㉔과 같은 말은 말하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4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돼.'와 '힘들게 준비한 건데~ 어떡하지?'에 소진이가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나타나 있다.
- 05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절약한 처리 비용으로 빈곤 국가 어린이를 후원하자는 것이다.
- 06 중간에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서만 발표 내용을 요약한 카드를 빠르게 확인해 발표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 07 이 발표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이므로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8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호흡을 하고, 자신 있게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 쓰기

01 보고하는 글 쓰기

1 핵심 체크 | p.174

1 절차, 결과 2 쓰기 윤리 3 신뢰성이 떨어진다.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4

1 ㉓ 2 ㉓

- 1 보고서를 쓸 때 탐구 결과는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제시해야 한다.
- 2 남의 글은 출처를 밝히고 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75~180

- 1 ㉒ 2 ㉑ 3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4 ㉓ 5 ㉓ 6 다른 사람의 자료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㉑ 8 ㉓ 9 ㉒ 10 ㉑ 11 결과를 과장해서, 의도에 맞는 결과 12 ㉒ 13 ㉑ 14 ㉑ 15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 16 ㉒ 17 ㉒ 18 ㉓ 19 ㉑ 20 ㉓ 21 잘못된 내용을 담은 글로 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잘못된 내용을 담은 글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1 보고서 쓰기를 계획할 때에는 조사 목적 및 주제, 조사 기간, 대상 및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방법을 정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자료 분석은 관찰, 실험, 조사가 끝난 후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 2 ㉑은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의 방법으로, ㉒은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1. 조사 목적 및 주제'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4 모든 모둠원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역할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서로 배려하며, 쉽고 편한 역할만 맡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 5 현장 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그대로 베껴 써서는 안 된다.
- 6 누리집에서 찾은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려 하면서 출처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7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보건 선생님을 면담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 8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하고자 하므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를 마시는 실태를 조사하는 설문에는 음료를 마실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지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9 조사 내용만 정리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사 내용을 정리할 때는 조사의 절차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하다.
- 10 ㉑은 수치로 표현된 설문 조사 결과이므로 표나 도표와 같은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전달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1 조사 결과는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한다.
- 12 조사를 하며 느낀 점은 보고서의 끝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은 설문 조사, 학교 앞 상점을 방문하는 것은 현장 조사, 누리집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자료 조사, 보건 선생님과 면담하는 것은 면담 조사이다.
- 14 누리집에서 찾은 자료는 그 출처를 반드시 함께 정리해야 한다.
- 15 '1. 조사 목적 및 주제'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함.'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 16 매체 자료는 보고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항목에 한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지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7 실태 조사 결과는 수치가 높은 순서부터 차례로 제시했다.
- 18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은 하루 섭취 열량의 10퍼센트로 약 50그램 이내인데, 보고서에 제시된 음료수 중 한 잔만 마셨을 때 이를 초과하는 것은 없다.
- 19 보고서를 쓸 때는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 후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 후 보고서를 쓰고 평가한다.
- 20 짜깁기는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동이다.
- 21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쓰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쓰는 것은 쓰기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다.

- 04 (나)는 조사 내용만 정리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보고서를 쓸 때에는 조사의 절차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05 보고서의 처음에는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을 밝혀야 한다. '조사 내용 요약'은 보고서의 끝에 들어가고 '조사 결과 분석'은 조사 결과 뒤에 들어갈 수 있다.
- 06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을 직접 조사한 것처럼 꾸며서도 안 되고, 남의 자료를 함부로 가져와서도 안 된다.
- 07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하거나 조사 결과를 변형하여 제시하면 글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 08 각각의 수치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나 도표(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핵심 포인트 p.175~180

핵심 포인트

- 01 당류, 설문, 면담
- 02 설문, 현장, 자료, 면담, 출처
- 03 매체, 과장, 의도
- 04 절차, 매체
- 05 출처, 짜깁기, 사실, 신뢰성, 저작권법

내용 한눈에 보기 p.181

조사 방법	설문	현장	자료	면담
절차	결과	매체	사실	인용
신뢰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82~183

01 ⑤ 02 ② 03 ③ 04 보고서는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조사의 절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05 ① 06 ③ 07 ③ 08 조사 결과를 나타낸 표나 도표(그래프)를 제시한다.

- 01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 음료수에 들어 있는 당류의 양,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조사하려 하고 있으며, ⑤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02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보건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와 면담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 03 ㉠는 조사 결과를 과장해서 제시하려 하는 것이고, ㉡는 의도에 맞는 결과만 골라서 제시하려 하는 것으로 둘 다 사실에 근거해 써야 한다는 쓰기 윤리에 어긋난다.